

한국 인류기원신화의 ‘벌레’ 화소 재고

전금화*

[국문초록]

본고는 「창세가」의 ‘벌레’ 화소가 한국인류기원신화에서 의미하는 바를 다양한 민족의 인류기원신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했다.

‘벌레’ 화소는 한국, 중국, 게르만, 타이완, 오세아니아 등 여러 민족의 자료에서 모두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창세가」에서처럼 벌레와 창조의 주체가 함께 등장하는 자료는 한, 중, 게르만 세 민족뿐이었다. 이들 자료 모두 거인신이 창세직능을 수행하지만 창조재료인 벌레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미륵을 제외한 다른 두 신격은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직접 화생창조(化生創造)하므로 거인신의 신체가 곧 벌레의 근원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창세가」의 경우 벌레가 하늘에서 하강한 것으로 나와 그 최초의 근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 반고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같은 이름의 창세신격이라 할지라도 후대의 변이로 인해 창세신적 직능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미륵’, ‘석가’ 등 불교신격의 이름으로부터 미륵 전 단계에 반고와 같은 전지전능한 원시신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론했다. 이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벌레, 인류기원, 창세가, 거인신, 창조재료, 신체, 화생, 하강
蟲, 人類起源, 創世歌, 巨人神, 創造材料, 身體, 化生, 下降

창세신화와 거인신화 및 ‘벌레’와 ‘거인신’ 두 요소가 등장하는 다른 민족들의 자료를 더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벌레가 거인신의 신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한 자연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체에서 벌레가 생기는 순환 과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창세가」에서 벌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관과 상상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한국의 무의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징은 무속신화라는 자료의 특성상 무의를 차용하고, 불교, 유교 등 당대의 문화를 수용하여 ‘벌레’ 화소의 원형적 이미지 위에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덧입혀진 결과이다.

1. 문제 제기

「창세가」는 민속학자 손진태가 1923년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본궁리의 큰 무당이었던 김쌍돌이로부터 채록하여 1930년 『조선신가유편』(향토문화사)에 보고한 자료로, 창세신화소가 풍부하고 다양해서 창세신화의 범례로 간주되는 귀중한 자료이다.¹⁾ 자료에서 가장 돋보이는 창세신화소는 ‘천지개벽’과 ‘인류기원’에 관한 것인데, 특히 인류기원 부분은 다른 창세신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창세가」에 따르면 인류의 시작은 ‘벌기’이다. 즉 ‘벌레’라는 미물로부터 인류가 기원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자료 중 ‘벌기’가 인간이 되는 창세신화는 「창세가」가 유일하고, 그 내용 또한 단편적이어서 이 자료만으로는 ‘벌기’에서 인류가 기원되는 신화의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도된 적이 없었고, 다만 창세신화를 연구하는 자리에서 그 일부분으로 ‘벌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

1) 김현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pp. 227-228.

을 뿐이다. 박종성은 ‘벌기’를 무구(巫具)인 신경(神鏡)에 비친 퇴문(雷紋)으로 보고, 이를 ‘용’ 또는 그와 유사한 ‘뱀’, ‘지렁이’ 등을 상징한다고 했다.²⁾ 또 다른 연구자인 김재용은 그와 다른 주장을 제기했는데, 그는 ‘벌기’를 신주단지과 그 안에 있는 조상의 혼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했다.³⁾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고유문화를 통해 한국 인류기원신화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창세가」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내려진 결론은 실상과 달리 한국문화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신화소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민족의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연구자인 김인희는 중국 반고신화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벌레’ 인류기원신화⁴⁾를 살폈다. 그는 중국 신화 자료 중에 벌레가 인간이 되는 내용이 확인되고, 또 고대 중국어에서 ‘충(蟲)’자가 ‘뱀[蛇]’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창세가」의 벌레가 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⁵⁾ 이 연구는 주변 민족의 자료를 통해 한국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벌레’로부터 인류가 기원되는 신화소는 중국 반고 신화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반고신화와 의 관계로만 한정짓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비슷한 인류기원 신화소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창세신화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창세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 ‘벌레’ 인류기원 신화에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사고에

2) 박종성(1999), 「韓國 創世敍事詩의 神話的 意味와 時代的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7-61.

3) 김재용(2002),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창조신화의 세계』(전북대 인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p. 65.

4) 논의의 편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벌레가 인간이 되는 신화를 ‘벌레’ 인류기원신화로 표기한다.

5) 김인희(2000), 「韓·中 巨人神話 比較 研究」,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 p. 67.

대해 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본고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국 ‘별레’ 인류기원 화소의 신화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자료에 대한 검토

2.1. 한국 「창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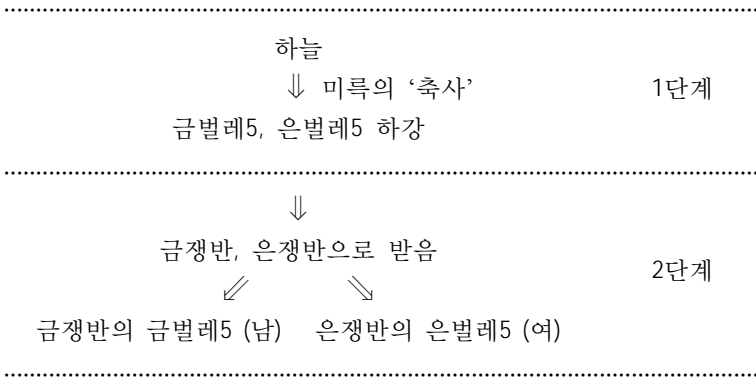
옛날 옛時節에, 彌勒님이 한쪽 손에 銀쟁반 들고, 한쪽 손에 金쟁반 들고, 한을에 祝詞하니, 한을에서 별기 썰러져, 金쟁반에도 다섯이오, 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별기 질이와서, 金별기는 사나희 되고, 銀별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銀별기 金별기 자리와서, 夫婦로 마련하야, 世上사람이 나였서라.⁶⁾

한국 「창세가」를 보면 미륵이 하늘에 축사(祝辭)를 하자 하늘로부터 ‘금별기’와 ‘은별기’가 내려오는데, 금쟁반에 떨어진 다섯 금별기는 남자로, 은쟁반에 떨어진 다섯 은별기는 여자로 자란다. 말하자면, 미륵의 축사를 통해 하늘로부터 얻은 ‘별레’가 인류의 시작이 된 셈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창세가」에서 미륵은 태초에 천지가 생성될 때 천지와 더불어 탄생한 거인신으로, 그는 기둥 네 개를 세워 하늘과 땅을 분리한 창세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하늘에 두 개씩 걸려 있는 해와 달을 떼어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마련하는 등⁷⁾ 다양한 창세직능도 발

6) 김현선(1994), pp. 232-233.

7) 김현선(1994), p. 230. “하늘과 사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한즉, 한을과 사이 서로부터, 썰러지지 안이하소야, 한을은 북개 꼭지차럼 도도라지고, 짜는 네(四) 귀에 구리기둥을 세우고, 그새는 해도 돌이요, 달도 돌이요, 달 하나 썩여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마련하고, 해 하나 썩여서 큰별을 마련하고”

휘한다. 그런데 유독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능력의 한계를 보여 직접적인 창조가 아닌 ‘축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인간이 될 벌레를 받아 인류의 기원을 완성한다. 즉, 「창세가」에서의 미륵은 혼자 힘으로 인간 창조를 완성할 수 없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창세신격인 것이다. 아래 「창세가」에서의 인류기원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창세가」의 인류기원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미륵이 하늘에 축사를 하여 하늘로부터 금벌레와 은벌레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쟁반과 은쟁반으로 받은 벌레들이 다시 남자와 여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벌레’는 흔히 인간에 비해 하등동물(下等動物)로 인식된다. 하지만 「창세가」속에서 벌레는 그보다 고등단계인 인간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창세가」는 왜 하필 ‘벌레’가 인간이 된다고 하는가? 이는 비단 「창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신화소는 다른 민족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 자료이다.

2.2. 중국 자료

각편1)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반고가 천지를 분리하였을 때 땅 위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벌레가 변하여 창조된 것이다.⁸⁾

각편2)

가장 먼저 반고가 태어났고 반고가 죽자 몸이 화(化)했다. 기는 풍운으로, 목소리는 천둥으로, 왼쪽 눈은 태양으로, 오른쪽 눈은 달로, 사지와 오체는 땅의 네 끝과 五嶽으로, 피는 강으로, 혈관은 지형(地形)으로, 근육은 토양으로, 두발과 수염은 별자리로, 피부와 털은 초목으로, 치아와 뼈는 금석으로, 골수는 주옥(珠玉)으로, 땀은 비로 변했다. 몸에 벌레들은 바람에 감응하여 수많은 인간이 되었다.⁹⁾

각편1은 한국과 가까이 있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정해(定海)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반고신화이다. 자료에 의하면 최초로 반고가 천지를 분리하였을 때 인간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벌레가 하강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창세가」의 내용과도 아주 유사한데, 여기에서 반고 역시 「창세가」의 미륵처럼 천지를 분리하는 창세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각편2는 「오운력년기」(五運歷年紀)에 수록된 자료로, 이는 최초로 반고신화를 수록한 문헌이기도 하다. 자료를 보면 세상에 가장 먼저 반고가 태어난다. 그리고 반고가 죽자 그의 몸에서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몸에 붙어 있는 벌레들에서 인간까지 태어난다. 이는 각편1에서 ‘벌레’가 인간이 되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각편2의 경우 반고의 창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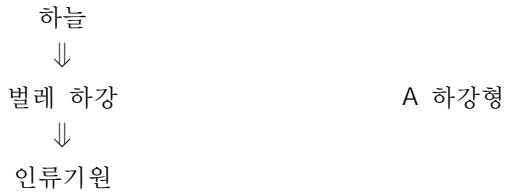
8) 陳勤建(1996), 『中國鳥文化』, 學林出版社, p. 4. “傳說盤古分天地以後, 地上本無沒人, 是天上放落許多蟲子, 蟲子變成人.”

9) 徐整, 『釋史』卷1, 「五運歷年紀」. “首生盤古, 垂死化身, 氣成風雲, 聲爲雷霆, 左眼爲日, 右眼爲月, 四肢五體爲四極五嶽, 血液爲江河, 筋脈爲地理, 肌肉爲田土, 發髭爲星辰, 皮毛爲草木, 齒骨爲金石, 精髓爲珠玉, 汗流爲雨澤, 身之諸蟲, 因風所感, 化爲黎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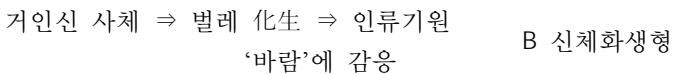
적 직능에 있어서 각편1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각편1의 거인신은 이미 창조된 천지를 분리하는 모습만 보이지만, 각편2의 거인신은 자신의 신체에서 풍운, 천둥, 일월, 오악(五嶽), 강, 지형, 토양, 별자리, 초목, 금석, 주옥, 비 등 온갖 천지만물을 화생창조하는 전지전능한 창조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편2의 거인신은 또 인류의 근원이 되는 ‘벌레’도 ‘하늘’과 같은 상위 신격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 비록 자료에서는 ‘거인신의 몸에 붙어있는 벌레’라고만 서술되어 있지만 자료의 첫머리에서 이미 밝혔듯이 가장 먼저 반고가 태어났다[首生盤固]고 하였으므로 반고 전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고의 신체에서 온갖 자연현상들이 하나씩 창조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반고 몸에 붙어있던 벌레 역시 그의 신체에서 비롯된 생명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초에 태어난 거인신 반고의 신체에서 인간의 근원이 되는 벌레를 비롯한 온갖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이처럼 각편2는 이전의 자료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벌레의 창조자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인류기원 과정에서 거인신이 창세신으로서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편1과 각편2의 인류기원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편1



각편2



2.3. 게르만족 자료¹⁰⁾

각편3)

- ① 태초에 북쪽에는 추위와 어둠이, 남쪽에는 따뜻한 기운과 밝음이, 그리고 그 사이에 기눙아가프[Ginnungagap]라 불리는 심연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늘, 땅, 신은 물론 한 움큼의 풀조차 없었다.
- ② 북쪽의 얼음지역은 니플하임[Niflheim]이라 부르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흐버겔미르[Hvergelmir]라는 샘에서 물이 뿜어 나와 소금과 독을 함유한 열 한 개의 강물이 생겼고, 심연 속으로 흘러 들어가 얼음으로 변해 돌처럼 굳어졌다.
- ③ 남쪽 무스펠하임[Muspelheim]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불꽃이 심연으로 흘러갈려 가서 얼음과 서리를 녹였고, 사람의 형상을 한 최초의 생명체 거인 이미르[Ymir]가 태어났다.
- ④ 이미르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성을 지닌 존재로 그가 자고 있을 때, 왼쪽 겨드랑이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자랐고, 한쪽 발은 다른 한쪽 발의 아들을 하나 낳았다. 모든 거인들은 이들의 후손들이다.
- ⑤ 무스펠하임의 얼음들은 즐기치게 녹았고 얼음에서 아우두믈라[Audumla]라는 뿔 없는 암소 한 마리가 태어났다.
- ⑥ 이미르는 암소의 젖통에서 풍성하게 쏟아지는 젖을 먹고 힘센 거인으로 성장했다.
- ⑦ 암소가 혀로 핏을 얼음에서 신들의 조상이 태어났고 그는 아들 하나를 탄생시켰다.
- ⑧ 아들은 거인의 딸 베스틀라[Bestla]를 아내로 맞아 최초의 신들인 오딘[Odin]과 그의 형제 빌리[Vili], 베[Vé]를 낳았다.

10) 게르만 신화는 흑해부터 중부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전파되었던 신화로써,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 이 지역의 토착 종교와 신화를 의미한다. 4세기경 유럽 대륙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이 되어 거의 모든 토착 종교가 사라졌지만, 노르웨이·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10세기경에야 개종이 되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종교와 신화가 많이 남아 있다(정재서·전수용·송기정 지음(2008),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82).

- ⑨ 세 명의 신은 거인들이 사는 척박한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이미르의 거대한 몸이 점점 비대해져 더 많은 공간을 점령하게 되자 이미르를 죽였다.
- ⑩ 이미르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와 홍수가 졌고 신들은 거인족들이 홍수에 빠져 죽게 했다.
- ⑪ 거인 베르겔미르[Bergelmir]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다.
- ⑫ 오딘과 그 형제들은 이미르의 시체를 기농아가프로 끌고 가서 세계를 만들었다. 이미르의 살로 육지를, 피로 물과 바다를, 두개골로 하늘을 만들었다. 두개골 즉 육지의 네 끝에는 난쟁이 한 명씩 배치해서 하늘을 기둥처럼 떠받치게 했다.
- ⑬ 신들은 땅을 바다에서 들어 올려 단단하게 굳혔다. 이미르의 다리로 산을, 턱뼈와 이, 그리고 부스러진 뼈로 돌을 만들었다. 이미르의 머리카락에서 나무들이 생겨났고, 그의 뇌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졌다.
- ⑭ 신들은 중간세계 미드가르트[Midgard]를 만들었으며 그곳의 거주자인 인간들을 창조했다.
- ⑮ 신들은 거인 이미르의 피와 살 속에서 놀라운 번식력으로 성장하는 구더기들을 보고 인간의 모습과 지능을 부여했고 그들의 거주지인 슈바르츠알펜하임을 만들었다.
- ⑯ 난쟁이들은 솜씨가 뛰어난 수공장이인이었으며 신들보다 더 훌륭한 장신구와 도구, 그리고 무기제조법을 터득했다.¹¹⁾

게르만족의 자료에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거인신 ‘이미르’가 탄생한다. 그리고 이미르가 최초의 신들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의 신체에서 온갖 세상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한다. 살은 육지로, 피는 물과 바다로, 두개골은 하늘로, 다리는 산으로, 턱뼈와 이, 그리고 부스러진 뼈는 돌로, 머리카락은 나무로, 뇌는 구름으로 창조된다. 그리고 그의 살과 피에서 태어난 구더기들로부터는 인간의 모습과 지성을 가진 난쟁이들

11) 라이너 테츠너, 성금숙 옮김(2002), 『게르만 신화와 전설』, 범우사, pp. 15-27.

이 태어난다. 여기까지 보면 중국 반고신화와도 유사한 모습이다. 그런데, 게르만족의 경우 거인신의 죽음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신들에 의해 살해된 것이므로 반고신화와는 차이가 있다.¹²⁾ 또 인간은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만 되어 있고 이미르의 몸에서 비롯된 별레에서도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존재인 난쟁이들이 창조되므로 앞서 본 각편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게르만족 신화에서의 거인신은 인류기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가? 아래 게르만족의 다른 각편들을 보도록 하겠다.

각편4)

이미르의 시체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의 살은 육지가 되었고 그의 피는 물과 바다가 되었다. 그의 머리로는 하늘이 만들어졌고 머리의 네 귀통이가 대지의 끝과 만나는 네 지점에는 난쟁이가 한 명씩 배치되었다. 젊은 신들은 이미르의 다리로는 산을, 그의 턱뼈와 이로는 돌들을 만들었다. 이미르의 머리카락에서 나무들이 생겨났고 그의 뇌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미르를 죽인 후 신들은 중간 세계인 미트가르트[Midgard]를 만들고 두 개의 나무 조각으로 그곳에 거주할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중략…)

또한 번식력이 강한 구더기들에게 인간의 모습과 지능을 주어 흙과 자갈 속에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알프[Alf]라 부르는 난쟁이들이었다. 그들은 손재주가 좋아 수공장들이었으며 특히 장신도와 도구, 그리고 무기를 제작하는 대장장이들이었다.¹³⁾

12) 중국 반고신화에서는 의도적인 살해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선 질서의 파괴에 대한 은폐의 결과일 수도 있고, 파괴와 창조라는 능동적인 행위에 대한 관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낡은 생명과 질서의 소멸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질서가 탄생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고신화와 게르만신화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편5)

안개로 뒤덮인 세상의 남쪽에는 빛의 세계가 있었다. 한번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따스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자 구름이 만들어졌다. 이 구름들은 얼어서 이미르라는 서리 거인과 젖소 아우드훔블라가 되었다. 이미르는 아우드훔블라의 젖을 먹고 살았다. 얼음이 녹아 소금이 약간 드러났다. 아우드훔블라는 그 소금을 훔았다. 아우드훔블라가 훔고 또 훔자 얼음 속에 묻혀 있던 한 남자가 드러났다. 첫날에는 그 남자의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다음날에는 머리와 어깨가 보였다. 이 남자가 오딘과 빌리, 베의 아버지인 최초의 신이었다.

오딘과 빌리, 베가 이미르를 죽였고, 이미르의 소금기 있는 피가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루었다. 이미르의 뼈는 산을 이루고, 살은 땅을 이루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온갖 식물들이 돋았다. 그 중에는 물푸레나무와 느릅나무도 있었다. 오딘은 물푸레나무로 아스크라는 남자를 만들고 느릅나무로는 엠블라라는 여자를 만들었다. 오딘은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었다. 빌리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고, 베리는 언어를 주었다.¹⁴⁾

위 각편들에는 인류기원에 대한 설명이 보다 자세하게 되어있다. 각편 4에서는 신들이 두 개의 나무 조각으로 최초의 인간 남녀를 창조했다고 하고, 각편5에서는 물푸레나무로 남자를, 느릅나무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인간의 주 재료가 되는 나무들이 모두 거인신 이미르의 머리카락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는 게르만족 신화에서의 거인신 역시 각편2의 반고와 마찬가지로 인류기원과정에서 있어서 직접적인 창세신적 직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록 인류기원의 주 재료가 벌레가 아닌 나무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 역시 벌레와 마찬가지로 거인신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근원이

13) 정재서·전수용·송기정 지음(2008), pp. 83-87.

14) J. F. 비엘레인, 현준만 옮김(1996),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서적, p. 74.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게르만족 신화에서 인류와 난쟁이가 기원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인신 사체 ⇒ 1) 나무 化生 ⇒ 인류기원 (각편4, 각편5)

B 신체화생형

↘ 2) 벌레 化生 ⇒ 난쟁이기원 (각편3, 각편4, 각편5)

2.4. 기타 자료

각편6)

태고에 나방의 애벌레[Qoqota]가 땅에서 기어 다녔는데 속도가 아주 빨랐다. 그 뒤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으로 화(化)했다.¹⁵⁾

각편7)

태고에 뼈 없는 사람의 형체 둘이 땅 위를 기어 다녔다. 한번은 개미, 모기, 구더기 등이 가득 몰려와 두 형체를 에워쌌다. 놀란 둘은 곧 일어서서 걷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 두 남녀는 새가 교합하는 모습을 배워서 많은 자손을 낳았다.¹⁶⁾

각편8)

조개 껍데기 속에서 살았던 암수 한 쌍의 벌레인 올레브와 레지만이 최초의 인류였다고 한다. 그러한 생각은 통가 제도에도 있는 것 같다. 그 벌레들은 조개 껍데기의 윗부분을 하늘이 되도록 들어 올렸고, 아랫부분은 대지로 남겨놓았다.¹⁷⁾

15) 陳國鈞(1974), 『臺灣土著始祖傳說』, 中國民俗學會, p. 63. “太古時代, 有芋蟲qoqota在地上匍匐, 行動急速, 後來直立行走化成人類.”

16) 陳國鈞(1974), p. 63. “太古有兩個無骨人形者, 匍匐於地上. 有一次, 許多蟻蚊蛆聚集前來將其包圍, 二物受驚遂起立行走而成為人, 此男女二人自鳥習之交合之道, 生更多孫.”

17) 아서 코트렐, 도서출판 까치편집부 역(1995), 『세계신화사전』, 도서출판 까치, p. 388.

각편9)

태초에 로아[Loa] 또는 로와는 원초의 바다에 혼자 살고 있었다. 로아는 고독과 권태 때문에 산호초와 모래톱을 만들고, 식물과 새를 창조했다. 그리고 각 주요 지점들에 신을 주재시켰다. 로아의 다리에서 최초의 남자 올레브와 최초의 여자 림두나니지가 나왔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올레브를 죽일 음모를 꾸몄으므로 올레브는 달아나다 지상에 떨어졌다. 지상에 머물게 된 올레브의 다리에서 다시 두 아들이 생겼다. 둘 가운데 동생인 에다오는 위대한 마법사가 되었으며, 울로파트의 모험과 비슷한 많은 모험을 감행했다.¹⁸⁾

각편6과 7은 타이완 뿌농족[布農族]의 자료이다. 자료6을 보면 바다에서 기어 다니던 나방의 애벌레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으로 변한다. 또 다른 각편7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뼈 없이 바닥을 기어 다니는 인간의 형체라고 하므로 그 모습 역시 애벌레와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체도 각편6의 애벌레처럼 일어서서 걷더니 인간이 된다. 이처럼 벌레와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사유는 타이완의 또 다른 토착민족인 쩌우족[鄒族]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그들은 “태고에 새, 짐승, 벌레, 어류는 구분이 없었고 모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뱀도 마찬가지였다”¹⁹⁾라고 한다. 타이완의 토착민족들은 벌레를 인간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원시적인 신화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타이완 토착민족 자료의 경우 벌레가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벌레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사유는 확인이 되지만, 벌레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창세신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각편8과 9는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의 자료이다. 먼저

18) 아서 코트렐, 도서출판 까치편집부 역(1995), p. 388.

19) 林道生(1990), 『原住民神話・故事全集』1, 漢藝色研文化事業有限公司, p. 61. “太古時候, 鳥獸蟲魚並沒有什麼差別, 都具有人的形象. 當然蛇也一樣.”

3.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중국, 게르만, 타이완, 오세아니아 등 여러 민족의 자료에서 모두 별레가 인간이 되는 신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민족의 인류기원신화를 주요소별로 정리한 것이다.

인간창조의 자료		창조의 주체 또는 보조자	창조재료의 유형	창조재료의 제공자	창조재료의 획득 방식	창조결과
한국	창세가	보조자-미륵 (거인신)	금별레 은별레	하늘	하늘에서 하강 (미륵의 축사)	금쟁반의 금별레5(남) 은쟁반의 은별레5(여)
중국	각편1	-	별레	하늘	하늘에서 하강	별레-인간
	각편2	반고(거인신)	별레	거인신의 사체	신체화생	별레-인간
게르만	각편3	이미르(거인신) 최초의 신들	구더기	거인신의 사체	신체화생	구더기-난쟁이
	각편4	이미르(거인신) 최초의 신들	나무조각 구더기	거인신의 사체	신체화생	나무조각-1(남), 1(여) 구더기(난쟁이)
	각편5	이미르(거인신) 최초의 신들	물푸레 나무 느릅나무 구더기	거인신의 사체	신체화생	물푸레나무(남) 느릅나무(여) 구더기(난쟁이)
타이완	각편6	-	나방의 애벌레	-	-	애벌레-인간
	각편7	-	뼈 없이 기어다니는 암수 한 쌍	-	-	뼈없는 형제- 1(남), 1(여)
오세아니아	각편8	-	암수 별레	조개껍질	-	별레-올레브(남) -레지만(여)
	각편9	로아	로아의 다리 올레브의 다리	창세신의 신체	신체화생	로아-올레브(남) ↳ 두 아들 -림두나니지(여)

표를 보면 한국, 중국, 게르만, 타이완, 오세아니아의 여러 민족 자료에서 모두 ‘벌레’ 화소가 확인이 되지만 한국의 「창세가」처럼 벌레와 함께 창조의 주체가 등장하는 자료는 한, 중, 게르만 세 민족뿐이다. 이들의 자료를 보면 모두 거인신이 창세신격으로 등장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세직능을 수행한다.

먼저 「창세가」의 미륵은 하늘에 축사를 하는 방식으로 벌레를 얻고, 중국의 반고²⁰⁾와 게르만족의 이미르는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화생창조한다. 그러나 벌레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미륵은 직접적인 창조가 아닌 ‘축사’를 하여 하늘에서 벌레가 하강하는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창세가」의 미륵은 천지와 세상만물을 창조해내는 반고, 이미르와는 달리 이미 창조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창세신적 직능에 한계가 있는 거인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도 미륵은 상위 존재인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자료 각편1과 유사하다. 각편1의 거인신은 미륵과 마찬가지로 인간창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레의 근원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하강했다고 할 뿐 다른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각편1에서는 거인신과 벌레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각편2의 경우 각편1과 같은 거인신격이 등장하지만 세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인 거인신은 사후(死後) 신체에서 천지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되는 벌레까지 화생창조한다. 말하자면 각편2의 거인신은 전지전능한 창세능력을 가진 창세신격으로, ‘하늘’과 같은 상위 신격의 도움이 없이도 인간창조의 주 재료인 벌레를 획득하여 인류기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같은 이름의 창세신격이라 할지라도 후대의 변이로 인해 그 창세신적 직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원시적인 창세신의 모습인 각편2의 거인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20) 논의의 편이를 위해 각편1의 반고만 각편 수와 함께 표기하고 각편2의 반고는 그냥 반고라 표기 한다.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창조는 물론 인류의 기원까지 직접 완성할 수 있고, 반면, 각편¹의 거인신은 창세신적 직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도 능력의 한계를 보인다. 이는 한국 「창세가」에서의 미륵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창세가」만으로 최초 창조자였던 거인신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창세가」에서 사용된 ‘미륵’, ‘석가’와 같은 불교적인 용어로 미루어 볼 때,²¹⁾ 거인신 미륵의 이전 단계에 반고와 같은 전지전능한 거인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여지가 있다.²²⁾

「창세가」는 또 벌레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들과 차이를 나타낸다. 「창세가」에서 미륵은 하늘에 축사하여 내려온 벌레를 ‘금쟁반’과 ‘은쟁반’으로 받아 그것이 자라서 각각 남자와 여자가 된다. 이는 반고의 몸에 붙은 벌레가 바람에 의해 인간이 되는 자화(自化) 방식이나 이미르의 신체에서 비롯된 구더기가 난쟁이로 창조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하늘에 축사를 하거나, 금쟁반, 은쟁반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만의 특징으로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창세가」가 오늘날 조사된 자료이기도 하고 또 무당의 곳에서 불리던 무가라는 자료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쟁반에 음식을 담아 축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곳에 존재하는 형식이며, 또한 곳에 사용되던 무구(巫具) 중에 ‘금쟁반’, ‘은쟁반’처럼 해와 달을 상징하는²³⁾ ‘명도’,²⁴⁾ ‘울쇠’²⁵⁾와 같은 무구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무속 형식들

21) ‘미륵’, ‘석가’와 같은 불교신격이 원시신격을 대신하여 창세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불교가 유입된 이후에 생긴 변이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고구려 372년(小獸林王 2년), 백제 384년(枕流王 元年), 신라 527년(法興王 14년)이다 (李丙壽·金載元(1981), 『韓國史』, 乙酉文化社, pp. 575-581).

22)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거인신을 후대에 들어온 불교의 용어를 사용해서 ‘미륵’이라고 했다(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사, p. 116).

23) 서대석(201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p. 237.

이 「창세가」에서 인류를 창조하는 방법으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벌레’의 근원 및 그 의미

앞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벌레에서 인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한국, 중국, 게르만족, 타이완 오세아니아 등 여러 민족이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거인신이 창조재료인 벌레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미륵은 하늘에 축사하는 방식으로 벌레를 얻고, 반고는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생성시키며, 이미르는 다른 창조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뒤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탄생시킨다. 즉, 한국을 제외한 다른 두 민족의 인류기원에서는 거인신의 신체가 곧 인류의 시작이 되는 벌레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 인류기원신화에서 벌레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 「창세가」의 경우 벌레가 하늘에서 하강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최초의 근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는 미륵이라는 거인신격의 창세신적 직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륵 이전 단계의 창조자로서의 반고의 모습과 비슷한 거인신격이 존재할 가능성을

24) ‘명도’에 흔히 일월성신을 새기는 것으로 보아서 ‘금쟁반’과 ‘은쟁반’을 명도의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일월의 상징체임이 뚜렷해진다(김현선(1994), p. 66).

25) 제주도 무당(심방)의 약기인 ‘울쇠’는 구리로 만든 5가지의 무구(巫具), 곧 해거울·달거울·몸거울·아왕쇠·뽕롱쇠 등이 한데 어울린 약기로서, 이들을 ‘천하울쇠’ 또는 ‘천하울쇠상쇠거리’라고도 한다. 이 약기들은 그 기능과 형태, 장식 문양에 따라 일광경(日光鏡)·월광경(月光鏡)·병경(柄鏡)·방경(方鏡)·성령(星鈴) 등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도 우주와 인간의 생성법인 음양의 이치를 적용하였음을 볼 수 있으니, 이를테면 해거울은 양(陽)이요, 달거울은 음(陰)이며, 몸거울은 음양의 합(合)이요, 별방울인 뽕롱쇠는 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음양의 조합을 상징한 것이다(진성기(1979), 『濟州民俗의 멋』, 열화당, pp. 87-92).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서도 거인의 신체화생과 관련 있는 신화적 사고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 먹으니 석가님이 그것도 다 당신이 잡숫고 지튼 것으로 한번 물어 水中에다 뿌리시니 굵은 괴기 자잔 괴기 모든 괴기 근본이 되어 건너갑니다.

또 한번 물어 옥항에다 뿌리시니 나는 짐승 청제비 구제비 두루미 날아나오, 또 한번 물어 팔만 삼천에 뿌리시니 계는 짐승 뛰는 짐승 노루 사삼 범 녀대 돼 갔습니다.²⁶⁾

그는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그가 토해놓은 것은 큰 산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백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흘린 눈물은 동서 양쪽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설사를 하여 흘러내려간 것이 태백산맥을 이루었고, 똥덩어리가 튀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제주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배 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 놓은 장길손은 뒤를 돌아보며 「휴우-」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 만주벌판이 되었다고 한다.²⁷⁾

첫 번째 자료는 강춘옥 구연의 「생긔」이다. 자료에 의하면 석가가 먹다 남은 사슴 고기를 물어 뿌리자 그것이 물속에서는 물고기, 하늘에서는 날짐승, 그리고 벌판에서는 들짐승이 되었다고 한다. 즉, 석가가 사슴이라는 짐승의 신체를 분해하여 또 다른 짐승들을 창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석가는 미륵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신격으로 미륵이 가져간 해와 달을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거인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석가가 사슴의 신체를 분해해서 다른 짐승들을 창조하는 모습은 게르만족 신화에서 최초

26) 김현선(1994), p. 256.

27) 한상수(2003),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pp. 209-211.

의 신들이 이미르의 신체를 분해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 비록 사슴은 반고나 이미르처럼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거인신격은 아니지만 신체에서 세상의 일부가 화생창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고나 이미르와 다를 바 없다. 이 외에도 「창세가」의 결미에서도 신체화생과 관련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²⁸⁾ 이는 한국 창세신화에도 신체에서 자연의 일부가 화생창조되는 신화적 사고가 존재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한국의 「장길손」설화이다. 각편에서 거인신 장길손은 배고픔과 갈증을 참지 못하고 돌과 흙, 나무, 바닷물 등을 닥치는 대로 먹고 배탈을 일으켜서 엄청난 양의 배설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토해 놓은 것은 백두산이 되고, 눈물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며, 설사를 하여 흘러 내려간 것은 태백산맥을, 그리고 똥 덩어리가 튀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은 제주도가 된다. 다시 말해 거인신이 체외에 배설한 배설물로부터 산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설물로 산천을 창조하는 거인신의 모습은 다른 각편에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수수범벅을 만들어 먹고 썩은 똥이 ‘굿상망오름산’ 되는 선문데할망,²⁹⁾ 닛섬닷말을 한꺼번에 먹고 여러 군데 썩은 똥은 동산과 산악이 되는 손당장수,³⁰⁾ 바다에 썩은 똥이 오리섬이 되는 마고할미³¹⁾ 등이 그러하다. 이 유형의 자료들에서는 거인신의

28) 김현선(1994), p. 235. “석가님이 중이랑 다리고 차자 썩나서와, 山中에 드러가니 노루 사슴이 잇소아, 그 노루를 잡아내여, 그 고기를 三十 쫓을 끼워서, 此山中 老木을 썩거내여, 그 고기를 구어먹어리, 三千중 中에 돌이 이어나며, 고기를 싸에 썩저트리고, 나는 聖人이 되겡다고, 그 고기를 먹지 안이하니, 그 중 돌이 죽어 山마다 바꾸되고, 산마다 솔나무 되고.”

29) 장주근(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p. 7. “위낙 큰지라 식량이(食糧)이 많아서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썩은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

30) 진성기(1982), 「손당장수」,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pp. 94-95. “손당장수는 한 끼에 닛섬닷말을 먹어 똥도 望岳만큼 되는 것을 누었다. 마을 사람들이 큰 산인줄 알고 올랐다가 자꾸 빠지니까 똥을 여러 군데 조금씩 싸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여기저기 썩은 똥이 동산도 되고 산악도 되었다.”

신체가 자연의 일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체외에 배출되어 자연이 만들어진다. 거인신이 외부에 배출한 신체의 일부가 세상의 일부로 화생창조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거인신화는 주로 우주창생 및 지형형성과 같은 창조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인신화는 구전되면서 변이를 겪었을 것이다.³²⁾ 따라서 창조신격으로서의 거인신에 대한 전승이 크게 위축되면서, 신성성은 사라지고 거인설화는 기근과 배설을 중심으로 희화화되면서 흥미위주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산이나 강과 같은 거대한 자연물이 거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한국에도 분명히 거인신에 의한 화생창조라는 신화적 사고가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비록 지금 전승되고 있는 장길손, 선문데할망, 손당장수 등과 같은 거인신들의 창조행위가 신체에서 바로 화생창조하는 반고, 이미르 등의 창조행위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거인신의 배설물 또한 거인신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거인신 신체의 일부로부터 세상만물이 창조

31) 화성군편찬위원회(1990), 「형도의 탐과 오리섬」, 『화성군사』, p. 915. “마고할미가 바다에 있을 때 똥이 마려워 가랑이를 벌리고 변을 보았는데 이것이 오리섬이 되었다. 또 오리섬에는 바닷물에 잠길 듯한 바위가 둘 있는데, 이것이 가랑이섬으로 대변을 볼 때 밝은 것이다.”

32) 권태효는 구전설화로 전승되면서 신화적 본질을 잃고 변모되어 외모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 행위를 희화화시켜 전설·민담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한국 거인설화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형이 생긴 이유를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리스나 중국, 일본, 북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문헌에 기록화되면서 신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구전에만 의존하여 전승되면서 다른 형태의 설화로 변이되거나 희화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권태효(2002), 『한국의 거인 설화』, 역락, pp. 11-12).

33) 장주근은 거인설화를 이 세상이 창조되는 천지개벽신화로 보아 거인설화가 한국 최초의 신화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의 ‘선문데할망’ 자료를 중심으로 본토의 몇몇 자료까지 검토하면서 비록 신성성이 탈락되고 웃음거리로 타락했지만 거인신격이 천지개벽신화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장주근(1961),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 『한국의 신화-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민속원, pp. 39-49).

되는 신체화생의 신화적 사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인신 신체에서 화생창조되는 신화적 사고는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이는 앞서 제기한 반고신의 모습과 비슷한 미륵 전 단계 거인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실마리가 된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이미 보았지만 「창세가」의 인류기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벌레와 거인신이다. 왜냐하면 벌레는 인류기원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창조재료이고, 거인신 미륵은 ‘벌레’라는 창조재료를 마련하는 창세신격이기 때문이다. 아래 벌레와 거인신이 함께 등장하는 다른 민족의 자료를 더 보도록 하겠다.

대지 어머니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푸쑤쑤어뿌[普蘇索布]라는 화신우(火神牛)이고, 둘째는 라마쑤어뿌[拉瑪索布]라는 철신우(鐵神牛)이며, 셋째는 티에런쑤어뿌[鐵仁索布]라는 토신우(土神牛)이다. 셋은 비록 형제이지만 성격이 서로 달랐으므로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한번은 화신우와 철신우가 싸우기 시작했다. 첫째는 둘째를 뱃속에 삼켜버렸다. 철신우 라마쑤어뿌가 죽은 뒤, 털은 수목(樹木)과 백초(百草), 뼈는 돌과 산맥, 피는 강물, 내장은 짐승과 벌레가 되었다.³⁴⁾

아주 오래 전, 세상에는 하늘도 땅도 없었고 더군다나 초목이나 인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곳곳에는 겹겹이 어둠에 에워싸였고 구름이 뚝뚝 떠다니고 있었다. 거인신 꾸미야[顧米亞]와 그의 열두 명의 아들들은 천지를 개벽하고 만물을 창조할 결심으로 하늘과 땅

34) 謝選駿(1995), 『中國神話』, 浙江教育出版社, p. 41. “大地母親有三個兒子, 老大普蘇索布是火神牛, 老二拉瑪索布是鐵神牛, 老三鐵仁索布是土神牛. 三人雖是兄弟, 但性格迥異, 衝突頻起. 一次, 火神牛和鐵神牛抖了起來. 老大把老二吞到肚子里. 鐵神牛拉瑪索布死後, 毛變成了樹木, 百草; 骨頭變成了石頭, 山脈; 血液變成了河流; 內臟化成了動物, 昆蟲.”

을 만들 재료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때, 거대한 무소[犀牛]³⁵⁾ 한 마리가 구름과 안개와 친구하여 자유롭게 노닐고 있었는데, (무소의) 껍질을 벗겨 하늘을 만들고 아름다운 구름으로 하늘을 위한 옷을 지어 주었다. 두 눈알은 꺼내 별을 만들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였다. 또 무소의 살로 대지를 만들고 뼈로 돌을 만들었으며, 무소의 피는 물로, 무소의 털은 각종 화초와 수목으로 변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무소의 뇌수로는 인간을 만들고, 무소의 골수로는 각종 새와 짐승, 곤충과 물고기를 만들었다.³⁶⁾

먼저, 첫 번째 각편은 러바족[珞巴族]의 창세신화 「세 마리의 신우」(三個神牛)이다. 자료를 보면 창세신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자 그 신체에서 수목, 백초, 돌, 산맥, 강물, 짐승, 벌레 등이 창조된다. 다음, 두 번째 각편은 뿌랑족[布朗族]의 창세신화 「꾸미야」(顧米亞)이다. 자료에서 꾸미야는 거대한 무소를 죽여서 그 신체로 하늘, 별, 대지, 돌, 물, 풀과 화초, 수목, 인간, 새, 짐승, 곤충, 물고기 등을 창조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각편에서는 모두 거대한 몸집의 동물이 살해된 뒤 그 신체로부터 온갖 자연형상들이 화생창조된다. 그중에는 벌레의 기원도 확인되는데, 러바족은 내장이 벌레가 되었다고 하고, 뿌랑족은 골수에서 벌레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비록 이 두 민족의 신화에서 벌레가 창조되는 신체 부위는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인신의 신체 일부에서 비롯된

35) 본고에서는 중국어 자료의 번역을 따라 ‘서우’(犀牛)를 ‘무소’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뿌랑족 언어에서의 ‘리[立]가 ‘서우’ 즉 ‘무소’를 뜻하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陳鈞(1997), 『創世神話』, 東方出版社, p. 569).

36) 陳鈞(1997), pp. 563-564. “很多年以前, 沒有天, 也沒有地, 更沒有草木與人類, 到處是團團黑沉沉的, 飄來飄去的雲, 神巨人顧米亞和他的十二個孩子, 立志要開天闢地, 創造萬物, 為了尋找建造大地的材料, 他們一刻不停地奔波著. 那時候, 有一隻巨大的犀牛, 與雲為友, 和霧作伴, 自由自在的漫遊著, 就剝下它的皮做成天, 用美麗的雲粉給天做衣裳, 挖下它的兩隻眼睛做成星星, 讓他們在天上閃閃發光. 又把犀牛肉變成地, 把犀牛角變成石頭, 把犀牛血變成水, 把犀牛毛變成各種花草樹木, 最後把犀牛的腦漿變成人, 把犀牛角隨變成各種鳥獸蟲魚.”

것이므로 그 근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앞서 본 중국 반고신화나 게르만족신화의 벌레기원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래 이 민족들의 벌레기원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별 자료 벌레기원	중국반고신화	게르만신화	러바족신화	뿌랑족신화
창조재료 제공자	반고	이미르	신우	무소
기원되는 부위	몸	살과 피	내장	골수
기원 방식	신체화생	신체화생	신체화생	신체화생
창조결과	벌레	구더기	벌레	벌레

위에서 보다시피 벌레기원과정에서 주로 거인신이 벌레의 제공자가 된다. 다시 말해, 거인신의 신체에서 다른 자연현상들과 함께 벌레도 화생창조되는 것이다. 물론 벌레에서 인류가 기원되는 자료 중에는 벌레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거인신 대신 새의 모습을 한 신격이 등장하여 식물에서 생긴 벌레를 쪼음으로서 인류가 기원했거나³⁷⁾ 인간이 벌레의 모양으로 땅 속에서 나왔다고 했기에³⁸⁾ 이를 한국의 「창세가」와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거인신과 벌레가 동시에 등장하는 신화 중에서는 거인신이 다른 방식으로 벌레를 창조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벌레의 근원을 거인신이 아닌 다른 신격과 연관 짓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

37) 폴리네시아의 통가와 사모아의 신화에는 타나로아신이 그 딸 토리를 야마시기의 모습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 보낸다. 민둥바위에 생물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덩굴 풀 하나가 시들어 그 잎과 줄기에서 구더기가 생겨난다. 토리가 부리로 이 구더기를 쪼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한다(大林太良(1996), 權泰孝·兒玉仁夫 역, 『神話學入門』, 새문사, p. 102).

38) 인도네시아의 섬들, 뉴우기니아, 이스터 섬 등지에서는 인간이 벌레 또는 유충의 모양으로 땅에서 나왔다고 한다(張基權·閔憲植 외 역(1973), 『세계의 신화』 V, 대종출판사, p. 283).

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창세가」에서의 벌레의 근원을 거인신의 신체화생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레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등동물인 벌레가 고등단계인 인류로 성장한다는 사유는 원시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을 동일시했던 미분화(未分化) 상태의 산물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다른 동물이 아닌 벌레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죽으면 시체에 구더기가 들끓기 마련인데, 이는 주검에 대한 처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인들이 일상에서 곧잘 목격했을 법한 장면이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 신체가 분해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인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을 직접 확인했을 것이다. 즉,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죽음을 육신(肉身)의 완전한 소멸로 인식하는 사고와 차이가 있다.

원시인들에게 생명은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땅은 비옥해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새 생명이 싹튼다. 때문에 현재의 죽음은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하는 것이며 새로운 창조물로의 생명 전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죽음과 삶은 결국 존재의 모습만 바뀔 뿐 생명력은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할 수 있다. 오바야시타료우(大林太良)는 이를 역설의 원칙으로 설명했다. 바로 ‘사체가 썩으면 구더기가 들끓는 것을 뒤집어서 구더기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신화가 생겼다’³⁹⁾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간이 죽으면 벌레가 될 수 있듯이 벌레도 다시 인간으로 탄생될 수 있다. 이는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으로, 자연계의 모든 개체들은 이 같은 생명의 전이와 재생의 순환과

39) 大林太良(1996), p. 102.

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벌레’ 인류기원 화소에 내재된 보편적인 신화적 사고이다.

그런데, 한국 「창세가」에서의 벌레는 거인신의 신체에서 화생된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하강한 것이다. 그것도 일반 벌레가 아닌 미륵이 축사하여 하늘로부터 얻은 금벌레와 은벌레이다. 이는 다른 민족들의 ‘벌레’ 인류기원신화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이 ‘벌레’ 인류기원은 인간의 오래된 경험에서 비롯된 가장 원시적이고 보편적인 신화소이다. 그러나 한국 「창세가」의 경우 ‘벌레’ 인류기원이라는 보편적 신화소 외에 또 다른 신화적 세계관과 상상력이 확인된다. 앞에서 이미 거인신이 축사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금벌레와 은벌레를 쟁반으로 받는 행위가 자료의 성격상 굿이라는 무의(巫儀)와 관련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벌레의 하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무속은 신라, 고려, 조선 등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을 수용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수용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天地之間萬物之衆 唯人最貴]⁴⁰⁾라는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인간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인간을 단순히 벌레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미륵이라는 신이 하늘에서 받아서 그것을 인간으로 변신시켰다는 문화적 맥락이 덧칠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보편적 신화적 사고에서 비롯된 ‘벌레’ 인류기원신화가 무속신화라는 자료의 특성상 무의가 차용되고, 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불교, 유교 등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의 유입으로 과거의 서사와 신성성이 약화되어 오늘날 「창세가」 속 ‘벌레’ 인류기원신화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40) 이는 조선 중종 때 어린이 교육 교재로 쓰였던 『동몽선습』(童蒙先習)의 첫 구절이다(朴世茂 著, 『童蒙先習』).

5. 맺음말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인류기원신화의 ‘벌레’ 화소에 주목하여 기존의 반고신화에 한정된 ‘벌레’ 화소의 자료를 확장하여 여러 민족의 인류 기원신화들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 「창세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사고에 대해 재탐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 중국, 게르만, 타이완, 오세아니아 등 여러 민족의 자료에서 모두 벌레가 인간이 되는 신화소가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창세가」처럼 벌레와 함께 창조의 주체가 등장하는 자료는 한, 중, 게르만 세 민족뿐이었고, 이들의 자료에서는 모두 거인신이 창세신격으로 등장하여 창세직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거인신이 창조재료인 벌레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는데, 미륵은 하늘에 축사하는 방식으로 벌레를 얻었고, 반고는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생성시켰으며, 이미르는 다른 창조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뒤 자신의 신체에서 벌레를 탄생시켰다. 즉, 한국을 제외한 다른 두 민족의 인류기원신화에서는 거인신의 신체가 곧 인류의 기원이 되었다.

한국 「창세가」의 경우 벌레가 하늘에서 하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최초의 근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는 미륵이라는 거인신격의 창세신적 직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 반고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같은 이름의 창세신격이라 할지라도 후대의 변이로 인해 창세신적 직능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살폈다. 또 ‘미륵’, ‘석가’와 같은 창세신격의 이름은 불교가 유입된 이후에 생긴 변이이므로 미륵 이전 단계의 반고 모습과 비슷한 전지전능한 원시신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한국 창세신화와 거인신화들을 살펴, 한국에도 신체에서 자연의 일부가 화생창조되는 신화적 사고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벌레’ 인류기원신화의 주요 요소인 벌레와 거인신이 등장하는 다른 민족들의 자료를 더 살펴, 벌레의 기원에서 주로 거인신이 벌레의 근원지가 되어 그 신체에서 벌레와 다양한 자연현상들

이 화생창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벌레에서 인류가 기원되는 자료 중에는 벌레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벌레가 다른 방식으로 기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료들에서는 거인신 대신 새의 모습을 한 신격이 등장하여 식물에서 생긴 벌레를 쪼아서 인류가 기원했다거나 인간이 벌레의 모양으로 땅 속에서 나왔다고 했으므로 이를 한국의 「창세가」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거인신과 벌레가 동시에 등장하는 신화 중 거인신이 신체화생 외의 다른 방식으로 벌레를 창조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벌레의 근원을 거인신의 신체화생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인신의 신체에서 벌레가 생겨났다는 사유는 인간이 경험한 자연의 순리와 관계가 깊다. 사체가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듯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의 전이와 재생의 순환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벌레’ 인류기원신화인 것이다. 벌레라는 요소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보편적인 신화적 원형이지만, 한국 「창세가」에는 그 원형 외에 사회·역사적 흐름에 따른 문화와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바로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온 벌레를 쟁반에 받는 설정이 그러한데, 이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한국의 무의와 관련시켜 설명했다. 말하자면, 보편적인 신화적 사고에서 비롯된 ‘벌레’ 인류기원신화가 무속신화라는 자료의 특성상 무의가 차용되었고, 또 불교적, 유교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지금의 ‘벌레’ 인류기원신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한국의 「창세가」를 비롯한 「벌레」 화소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인류기원신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편적이고 소략한 한국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 벌레의 상징적 의미 해석에만 머물러 있던 한국 ‘벌레’ 인류기원신화에 대한 연구 시각과 논의를 보다 확장하였다. 이 글 역시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펼친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지만, 각국 ‘벌레’ 인류기원신화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서 「창세가」의 ‘벌레’ 화소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인류기원신화 연구에 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 료】

- 陳國鈞(1974), 『臺灣土著始祖傳說』, 中國民俗學會.
陳鈞(1997), 『創世神話』, 東方出版社.
陳勤建(1996), 『中國鳥文化』, 學林出版社.
J. F. 비얼레인, 현준만 옮김(1996),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서적.
林道生(1990), 『原住民族神話・故事全集』1, 漢藝色研文化事業有限公司.
라이너 테즈너, 성금숙 옮김(2002), 『게르만 신화와 전설』, 범우사.
아서 코트렐, 도서출판 까치편집부 역(1995), 『세계신화사전』, 도서출판 까치.
謝選駿(1995), 『中國神話』, 浙江教育出版社.
徐整, 『釋史』 卷1.
張基樞・閔熹植 외 역(1973), 『세계의 신화』 V, 大宗出版社.
정재서·전수용·송기정 지음(2008),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논 저】

- 권태효(2002), 『한국의 거인 설화』, 역락.
김인희(2000), 「韓・中 巨人神話 比較 研究」,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회.
김재용(2002),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창조신화의 세계』, 소명출판.
김현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大林太良(1996), 權泰孝・兒玉仁夫 역. 『神話學入門』, 새문사.
朴世茂 저, 『童蒙先習』.
박종성(1999), 「韓國 創世敍事詩의 神話的 意味와 時代的 變遷」,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서대석(201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李丙壽・金載元(1981), 『韓國史』, 乙酉文化社.
장주근(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장주근(1961), 「하늘과 땅이 생긴 이야기」, 『한국의 신화-풀어쓴 한국의 신화』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민속원.

-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사.
진성기(1982), 「손당장수」,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진성기(1979), 『濟州民俗의 멋』, 열화당.
한상수(2003),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화성군편찬위원회(1990), 「형도의 탐과 오리섬」, 『화성군사』.

원고 접수일: 2016년 1월 8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월 27일

中文摘要

韓國人類起源神話的‘蟲’話素再考

全金花*

本论文旨在通过與其他多個民族的人類起源神話進行比較，闡明「创世歌」中的‘蟲’話素在韓國人類起源神話中的含義。

‘蟲’話素在韓國、中國、日耳曼、台灣、大洋洲等眾多民族的資料中都可以得到確認。然而，像韓國「创世歌」中所記載的‘蟲’與‘創造神’同時出現的資料只存在於韓、中、日耳曼三個民族之中。這些資料中都是巨人神履行創世的職能，然而在獲取創造材料—‘蟲’的過程中體現出一些差異。除彌勒以外的其他兩位創世神都是從自己的身體里直接變化出‘蟲’，因而可以看出，巨人神的身體即為‘蟲’的來源。

韓國的「创世歌」中，只表明了‘蟲’是從天而降的，因而難以確定其來源。然而將其與中國的盤古神話做一比較的話，可以知道即使是同名的創世神，經過後世的變遷，其創世職能也可能產生差異。此外，通過‘彌勒’、‘釋迦’等帶有佛教色彩的名字也可以推論出，在此之前，有可能曾存在過類似於盤古的全知全能型原始巨人神。爲了支持此論點，文中還對韓國創世神話和巨人神話，以及包含‘蟲’和‘巨人神’兩種要素的其他民族的資料進行了分析。

總而言之，‘蟲’之所以源自巨人神的身體，是和人類經歷的自然法則

* 首爾大學國語國文古典文學專業 博士修了

有關的，是尸體中生出蛆蟲的循環過程在神話中的表現形式。但是，韓國「创世歌」中‘蟲’從天而降的內容應該看作是不同的世界觀和想象力的產物。這一點，可以看作是有別於其他民族的韓國獨有的特征，從與韓國的巫儀相關的角度進行解釋。這種韓國獨有的特征是巫俗神話中特征性的巫儀，融合了佛教、儒教等當代文化，‘蟲’話素在原始形態的基礎上增加了當代社會文化因素的結果。